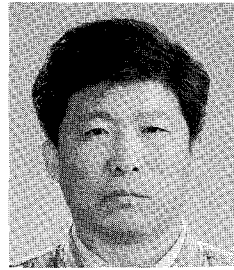


업계의 장기적인 어려움으로 병아리 적정선 생산 유지될듯

- 종계의 생산성, 환절기 질병, 종계환우 여부가 변수 -



이 광 초

경인축산 부회장 대표
경인유통 스위트후라이드 체인본부장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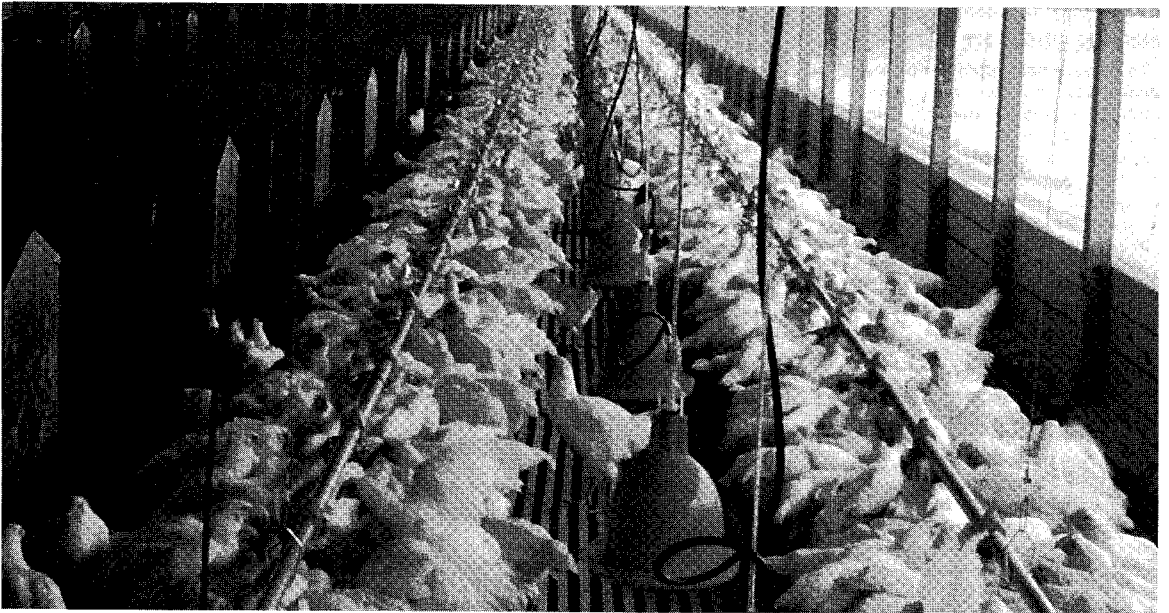
천년을 시작하는 금년 초의 육계경기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안정적인 경기가 지속되었다. 월별 육계시세는 대체적으로 생산비를 웃도는 선을 유지하였으며, 비록 질병과 무더위 등 환경적인 면에서 오는 생산성 저하의 피해는 있었으나, 6월과 7월의 경우 무더위와 질병으로 인하여 소비는 증가하고 생산성은 나빠져서 육계가격이 북중에는 사상 최고치인 1,800원에 이르러 육계사육 농장에는 일시적이거나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초생추 가격은 1999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근 1년간 생산비에 못미치는 가격이 지속되어 오면서 부회장은 장기간의 불황에 경영의 압박을 심하게 겪고 있어 앞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4/4분기 종계 부화업을 전망하여 보자.

2. 종계·부화업의 현실

1990년대 초반까지 초생추 판매 시장은 육계농장 개인이 초생추 입식을 결정하고 생산·출하하는 전업농가 및 부업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초생추를 판매할 대상 농장수가



많았으나, 이후 다수의 계열업체가 생겨나고 또한, 유사 계열 사육 형태가 늘어나면서 개인 사육농가(사계사육 농가)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초생추를 판매하는 대상이 감소하였다. 추측에 의하면 부화장이 초생추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1/3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 복경기를 겨냥한 육계 초생추의 입식 형태는 예년과 달리 많은 수의 백세미 입식과 이에 따른 질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육계 초생추의 입식공간이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육계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복중의 육계시세가 폭등한 요인이 되었으며 육계 초생추의 생산량이 예전에 비하여 적고, 육계시세가 고시세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생추 가격은 바닥을 헤치고 부화장은 초생추를 판매할 농장을 찾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화업자들의 초생추 판매 방식은 시장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판매방식으로 판매하고 생산계획도 예전에 하던대로 생산을 우선 하고 판매처를 찾아다니는 진부한 경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판매 및 경영방식이 근래에 부화업의 불경기를 지속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부화업자들이 급하게 변화하는 업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3. 4/4분기 육용종계업 전망

금년도 상반기중의 초생추 생산잠재력은 1999년 상반기의 생산잠재력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복물량과 이후 하반기의 잠

재력은 1999년에 비하여 적거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4분기는 작년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것으로 사려된다.

4/4분기에 생산에 가세하는 신계를 생산하는 금년 상반기 종계입식수수는 1,886,500수로 작년의 1,926,340수보다 2.1% 적었고, 같은 시기에 노계를 생산하는 1999년 하반기 종계입식수수는 1,599,600수로 1998년의 1,717,850수에 비하여 7.4% 적었다. 이와 같이 금년 4/4분기 초생추 생산수수는 1999년 4/4분기 초생추 생산수수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의 계육소비량은 그간의 초생추 생산량, 입식량, 육계사료 생산량, 육계시세의 형성 등으로 추측하여 볼때, 1999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육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계시세가 안정적인면을 볼 때 올해의 계육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4/4분기의 육계 경기도 커다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의 육계가격은 모두가 알다시피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였고 초생추 가격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 전망은 초생추 생산수수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초생추 생산잠재력은 초생추가 얼마만큼 생산되느냐를 말하기는 무척 힘들다. 초생추 생산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종계의 생산성, 환우계의 환우일령 및 환우수수, 노계의 도태일령 및 육계농가의 초생추

입식의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입식된 초생추의 생산성 및 기후, 질병의 유무에 따라 육계의 생산량이 영향을 받고, 계육의 소비량도 육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초생추 가격은 생산량 및 당시의 육계시세 및 사육농가의 입식 의향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경기를 전망하는 것은 하반기의 경우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금년 4/4분기의 초생추 가격 등 종계업의 경기는 올해의 육계업 경기의 흐름이나 생산잠재력을 감안할 때에 생산량은 작년에 비하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절기의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계의 생산성 여하에 따라 적정선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종계장이나 부화장에서 경제능력을 무시한 계군의 생산을 연장하는 등의 무리한 사육이 없을 경우 생산량 과잉에 의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종계·부화업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육계생산자의 분포는 계열업체가 50~60%이상의 육계를 생산하며, 유사 계열업체도 많은 수수를 생산하여 개인 사육농가가 사육하는 육계수수는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어 소비의 증감에 따른 계육생산의 조절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생추 생산량의 과부족도 경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나 초생추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경기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육계업의 경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육계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업체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종계·부화업의 경기는 육계업의 경기에 따라 좌우되며 종계·부화업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육계경기가 살아나야 가능하므로 종계·부화업자는 육계 경기가 회복하고 활황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화업자들은 초생추를 생산하는 생산업자는 물론 생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화업자들이 현재 종사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생산성을 높여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물을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판매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판매는 유통업에 속하며 유통의 속성은 수요에 의한 생산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은 그 결과가 뻘한 일이다.

차후의 종계·부화업의 경기를 활황으로 유도하는 길은 수요에 준하는 양을 적절하게 생산하여 생산물의 생산비를 상회하는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입식되는 초생추는 35~40일 이후에 육계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현재의 초생추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의 육계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5. 맺음말

육계경기가 상승할 때에는 육계업에 관여

하는 모든 업체들이 서로 웃으며 불만없는 관계를 지속하지만, 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업계가 서로를 비난하기 일쑤다. 육계사육농가는 계열사나 부화장이 초생추를 과다하게 생산하여 육계가격이 폭락하였다고 비난하고 계열사는 부화장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초생추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판매하여 불황이 왔다고들 한다.

또한 부화업계에서는 계열사가 생산을 줄이지 않고 초생추 가격을 끌어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경기 하락의 원인이 자신에게는 없이 타 업체들이 만든 결과라고 서로 누워서 침을 뱉는 경우가 반복되는 현실이다.

50년간 반목하고 지내온 남과 북도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위하여 힘쓰자고 노력하는 새천년이다. 육계경기는 누구 혼자서 일으킬 수도 없으며 망가뜨릴 수도 없는 업계 종사자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인 동시에 생활의 수단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모두 버리고 내가 살고 일하는 이 업계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은 업계 종사자 모두의 바램인 만큼 서로가 눈앞의 이익이나 코앞의 사탕을 위하여 근시안이 되지 말고 육계농가나 계열업체, 부화·종계업자 또한 사료, 약품, 기자재 업체 모두가 앞으로 닥아올 세계적인 경쟁시대의 육계업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이 경쟁에 승리하고 발전하여 나와 우리의 가업이 상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 개개인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업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양계**